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교회교육위론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한다. 최근 몇 년째 교회학교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학교의 감소 현상은 청소년 전도의 저조, 교인 자녀의 등록률 저하, 그리고 개신교 교인의 감소 등 내적요인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교회 밖 사회 전체의 저출산률도 한몫을 한다. 최근 10년간 전체 학령인구의 1/3이 감소하였다. 한 통계를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주일학교 소년부 학생수는 2003년에 105,372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7.8% 감소한 76,09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으로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한국교회가 인구 고령화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도록 한다.

최근 이러한 교회교육의 문제에 대해 교계에서는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들을 열고 원인과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인 목회철학의 차원과 교회학교의 방법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목회차원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차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교회학교 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연령별 분리교육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교육하는 근대식 학교교육체제를 도입한 이러한 교회학교 구조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청소년에게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령별 분리운영체제는 세대간 소통의 부재와 가정내 단절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성공적인 교육사례들이 소개되고 있고 뜻이 있는 교회들의 다양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목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교회교육을 위한 예산을 늘리며 연령별 운영의 구조를 탈피하여 가정을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심에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교회 전체사역의 개혁을 요구하는 일이라 쉽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틀 위에 학부모 교육을 하나 더 얹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운영의 방식을 바꾸고 교회교육의 조직과 방법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만으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접근으로 교회학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까?

정말 한국교회교육만 위기인가?

최근의 보고된 통계들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지난 25년간 주일학교 학생수가 25% 감소했다고 보고되며, 천주교 주일학교 학생수도 2005년 대비 32%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교회학교 학생수 감소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숫자를 회복하기 위해 너무 성급하게 교회 내부경영과 교육구조만을 문제시해선 안 된다. 이러한 위기론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차세대를 위해 기울여왔던 모든 노력들에 대한 폄하와 상실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기독교 혹은 종교의 위축현상은 전 인류가 기반하여 살고 있는 시대정신 즉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빚어진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모더니즘에서는 종교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명목으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에 기반을 둔 유신론적 진리관을 논의하는 자체를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보편적 진리관을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알버트 그린은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에서 ‘대다수의 성도들 특히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정통신학교리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있으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형성된 관점과 실제에 참여하는데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편적 진리의 근원이며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지만 여타 일상생활과 공적인 삶에서는 모더니스트와 포스트모더니스트처럼 사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이원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교회에 부과한 종교라는 사적인 영역



김정효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이며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이자 본지 편집위원이다. 기독교교육과정개발, 초등교육, 도덕 및 인성교육, 교육개발 및 선교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저서로는 『세계관으로 본 교육』(2010), 『아동리더십(2007)』 등이 있다.

안에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가두고 있다. 즉, 과학과 학문의 대상이 되는 창조세계와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적 삶에서 침묵하며, 다만 기독교는 단지 영혼과 내세를 위한 개인구원에만 적용되는 '사적인' 세계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교회학교안의 이원론적 사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자리잡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가 자녀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첫째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세상의 교육출세론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기를 기도해 왔고, 자녀교육에 대한 이러한 간구는 죄가 아니다. 또한 교육출세론은 한국교회의 성장기와 경제발전기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리의 쾌락과 소유와 능력을 채우도록 하는 이상숭배로 이어져 교회의 본질을 흔들고 우리사회 교육을 신음하도록 만들었다.

교육사회학자 오욱환교수는 최근 저작 『한국교육의 전환: 드라마에서 딜레마로』에서 한국의 교육이 우리사회의 건국, 경제성장, 계층 상승을 위한 드라마 같은 역할을 하였으나 빠져나올 수 없는 딜레마가 되었고,

우리사회의 이러한 '교육출세론'은 '출세교로 희화할 수 있는 시민종교'가 되었으며, '이 종교의 위력은 종교기관 안에서도 숭배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라고 지적한다.

교육출세론이 우리사회를 위계화, 양극화로 이끌었고, 경쟁은 더 이상 건설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악화되었으며, 공격적 평등주의가 확산되는 위기를 맞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출세론이 우리를 반격하여 학력은 변별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청소년들은 꿈도 현실도 외면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즉흥적인 교육정책들로 교육에 군림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주었던 교육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기하고 새시대에 걸맞는 교육개혁을 구상할 것을 주문한다. 각 개인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교육을 묶고 있는 구조적 구속에서 벗어나 교육 소외계층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공동체로 결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교육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수단으로 보기보다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하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한 봉헌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녀의 교육문제에서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며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자녀의 교육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한다. 주일학교가 아닌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부모의 신앙교육은 삶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 교육관의 변화가 없이는 가정-교회학교의 연계라는 교회학교의 구조적 변화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다.

둘째는 교회교육의 교육내용을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국한시킨 오류이다. 교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특별계시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달 연령에 맞도록 성경이 재구성되고 아동에게 흥미로워야 한다는 이유로 성경은 탈맥락적인 동화로 각색되고 도덕적 훈화를 위한 텍스트가 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적인 종교'의 틀 속에 가둬버렸고,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들었다.

교회의 구원 교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배우는 창조세계의 지식과 연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과학을 허락하셔서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지, 세계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반역으로 왜곡된 학문세계와 문화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사실들과 연결되어 역사성과 현실성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 역사 가운데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가운데 한국교회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한다. 60%가 넘는 NGO단체가 기독교배경을 가지고 개도국의 개발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동화 속 모세나 요셉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이 시대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

하며 봉사하고 있는지 소개해야 한다. 기독교는 단시적인 영역에서만 진리가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추구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이 실현되어지는지 알 때, 교회를 출석할 이유와 학교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

더욱 강력해져야 할 교회교육

사실 교회학교의 연령별 분리체제는 그동안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교세가 확장되어가는 시점에서는 교회학교가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기독교학교인 이화학당에서 시작된 첫 교회학교는 근대화 시대에 사회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자녀교육을 가정의 부모에게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은 맞다. 그러나 신앙이 미성숙한 부모도 있고 깨어진 가정들도 있으며 부모 없이 교회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디모데는 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 위에 바울의 제자훈련으로 더욱 강력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현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약해져가는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더욱 강력한 교회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사회의 회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경험과 창조세계의 원리를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교육내용, 역사적·문화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성경과 현실적인 삶을 연결할 수 있는 기독교성을 갖춘 교사,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이러한 교회의 위축상황에도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능히 다음세대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했을 것 같다. 

※ 해당칼럼은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와이드 칼럼 “월드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4/25일자)